

2 뉴스

# 서울 총학 학생과의 대화 마련

간다은 기자 ekdms200202@kn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  
(총학) 주최 '부총장님과의 대화,  
경희 2021 그리고 2022'가 지난 29  
일 개최됐다.

총학생회가 진행 중인 ‘경희, 그리고 밤’ 행사 속 코너였던 ‘부총장님과의 대화’, 경희 2021 그리고 2022’에는 남순건 서울 부총장과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 백 가림(사학 2018) 부총학생회장이 참여했다. 중계는 총학생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with KYUNGHEE’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고민’, ‘비대면 캠퍼스 생활의 장단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희대학이 나아갈 방향’ 등 3가지 구성으로 진행됐다.

첫 코너로 진행된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고민’에서는 “학교를 가지 않아 동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한 학부생의 고민이 공유됐다. 이에 남 회장은 “단과대학이나 학과 학생회에서 선후배, 동기들 간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만들어져 나름대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급 단위 학생회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대외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고민에 대해선 백 부회장이 “미래인재센터



'경희 그리고 박' 행사에서 날수거 서울 브초자과 서울캐 촉하새히자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초하생희 제공)

라는 취업 주관부서가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대외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남 부회장은 이어 “총학 측에서도 취업진로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며 “단과대학에서 취업진로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취업수기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코너인 ‘비대면 캠퍼스 생활의 장단점’에서 남 회장과 백 부회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개인의 삶에 생활을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비대면 캠퍼스 생활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반면 남순건 부총장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언급하며 학우들을 만날 수 없는 학생들의 고민에 공감하기도 했다.

마지막 코너인 ‘코로나로 인한 학교 측의 고민과 변화’에 대해 남

부총장은 “작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대학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학교의 재정적인 면, 교육적인 면에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코로나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또 점검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과 시험에 대해선 “일부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이에 빨리 대응하는 이캠퍼스를 국내 최대 용량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세심한 대비를 계속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정부도

\* 지난 1677호 3면에 게재된 <캠퍼스 흡연구역 대다수, 관련 법규 미준수> 기사 내용  
중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어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4항과 그 별칙'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으로 정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대학은 7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는 시설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흡연구역 설치 시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는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의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을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위에 언급된 흡연구역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 기사에서 보도한 "우리학교의 흡연구역 대다수가 흡연구역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바로 잇습니다. 드디어 보드게임 흡연은 드러 젤 나가드려 드립니다.

내용을 미묘접근합니다. 혹시 어려운문제에 대한답변을 드린점 사과드립니다.

# 국제 총학 문화 행사 개최

김나현 기자 nxhyxxnq27@knu.ac.kr

국제캠퍼스(국제캡) 총학생회(총학)가 주관하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熙夜[희:야] 경희의 밤, 빛나는 밤’이 개최된다.

국제캠 총학은 “2020년부터 2년 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쳐있을 학우들을 위해 문화행사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총학은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을 아울러 모두가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전시회’와 ‘희야 가요제’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전시회’는 ‘자유, 해방, 빛’을 주제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작품은 사색의 광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총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희야 가요제'는 19일에 본선이 진행된다. 가요제 역시 '온·오프라인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사색의 광장에 직접 방문해 관람하거나 총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장서연(스포츠의학 2021) 씨는 “비대면 상황으로 답답했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비대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